

일과 직업의 사회학

다양한 직업 영역

김현우, PhD¹

¹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May 19, 2022



진행 순서

- 1 관료제의 사회학
- 2 전문가란 누구인가?
- 3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 4 전문화의 과정
- 5 지위투쟁의 방식들

관료제의 사회학

관료제의 사회학

관료제는 오랜 고전사회학적 연구주제로 탐구되어 왔다.

- Max Weber는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고전사회학자 중 한 사람으로 특히 그는 **지배사회학(sociology of domination)**이라고 불리우는 분야를 개척하였다.
- **지배(domination)**란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특정의 구체적인 명령(또는 모든 명령)에 복종할 확률”로 정의된다(Weber 1968: 212).
- 오늘날 가장 의미있는 지배 형태는 바로 **권위(authority)**로 이것은 정당한 지배(legitimate domination)를 뜻한다.
- 정당한 지배 또는 권위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 (1) **합리적-법적(rational-legal)** 권위
 - (2) **전통적(traditional)** 권위
 - (3) **카리스마적(charismatic)** 권위

Weber 1921[1968]. Economy and Societ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관료제의 사회학

- 합리적-법적 권위는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믿음에 기반한다: 첫째, 제정된 규칙의 적법성(legality). 둘째, (그 같은 규칙 아래) 권좌에 오른 이들의 명령권(Weber 1968: 215).
- 전통적 권위는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오랜 믿음에 기반한다: 첫째, 오랜 전통의 신성불가침성(sanctity). 둘째, (그 같은 전통 아래)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의 정당성(Weber 1968: 215).
- 카리스마적 권위는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헌신에 기반한다: “한 개인 또는 그가 내린 규범이나 명령의 예외적인 신성성, 영웅적 자질, 또는 특수성(Weber 1968: 215).



관료제의 사회학

- 합리적-법적 권위를 실현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는 관료제(bureaucracy)이다(Weber 1968: 220).
- Weber에 따르면 관료제는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가장 고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다.
- 또한 관료제는 어떤 종류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점에서도 우수하다.



Weber는 관료제의 일반적 성격은 대략 이렇게 묘사하였다.

- (법과 행정적 규제에 통치되는) 직위 관할구역(official jurisdictional areas)의 원칙이 존재한다.
- 계층제적 구조(office hierarchy)에 따라 조직된다.
- 서류(files)로 임무수행이 이루어지는 문서화가 이루어진다.
- 관료는 전문화(specialization)된다.
- (부업처럼 일하던 과거와는 달리) 고도화된 관료제에서 관료는 전임이다.
- 관료는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일반규칙(general rules)을 지식으로써 학습하고 이에 준하여 관리한다.
- 이것이 관료제의 **이념형(ideal types)**이라고 할 수 있다(Weber 1968: 956-958).



관료제의 사회학

Weber는 관료제의 한계와 폐단에 대해서도 물론 인식하고 있었다.

- “합리적 계산은 ... 모든 노동자를 관료제라는 기계 안의 톱니바퀴로 전락시킨다. 이 안에서 노동자는 단지 자기자신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톱니바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하게 된다. ... 관료화를 향한 열정은 우리를 절망으로 내몬다.” (Weber 1968: 8).
- 그러나 Weber는 관료제가 결국 세계를 지배하리라 보았다: “관료제는 역사상 존재했던 다른 어떤 정부기관(agency)보다도 더 끈질기고 탈출불가능 (escape-proof)하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Weber 1968: 1401).
- 관료제가 갖는 합리성의 힘은 **강철 우리(iron cage)**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그 밖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 “관리 문제에 있어 대안은 관료제 아니면 **딜레탕트주의(Dilettantism)** 둘 중 하나 뿐이다” (Weber 1968: 223).



관료제의 사회학

- Weber가 볼 때, 관료제는 자본주의의 부산물 같은 것이 아니었다. 자본주의를 전복시킨다고 관료제가 사라질 리가 없었다.
- “사실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보다 더 한층 공식화된 관료화가 필요할 것이다”(Weber 1968: 224).
- Weber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바지에 미래를 우울하게 예측한다.

“어쨌든 이런 문화 발전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최후의 사람들(letzte Menschen)’에 대해서는 다음 말이 진리일지도 모른다. ... 영혼이 없는 전문가, 감정이 없는 감각주의자, 이런 공허한 사람들은 일찍이 인류가 도달하지 못했던 단계에 자신이 다다랐다고 자만할 것이다.”



전문가란 누구인가?

전문가란 누구인가?

직업통계에서 **전문가(professionals)**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한다.
-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 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전문가란 누구인가?

표준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파악된다.

-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유홍준 외 2016: 79).
- 또한 일부 직업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직능수준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간호사, 안경사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동시에 배출되고 있다.
- 이 대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8개 중분류로 되어 있다.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전문가란 누구인가?

흔히 전문가를 특징짓는 두 가지 요소로 독점과 자율성을 꼽는다.

- 첫째, **독점(monopoly)**은 한 직업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떤 종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면허제도 등 정부의 규제 덕택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때 성립한다.
- 이는 특히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전문가의 특징이다.
- **진입장벽(entry barrier)**을 세워 공급의 희소성이 인위적으로 창출되었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은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다. 이를 **지대(rent)**라고 부른다.



전문가란 누구인가?

- 그런데 이제 이 독점적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집단 구성원들은 **지대추구 행동 (rent-seeking behavior)**을 할 유인을 갖는다. 다시 말해, 서비스 자체를 개선하기 보다 정치적 로비 따위를 통해 지대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Milton Friedman은 이런 측면에서 의사의 자격증조차 불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Friedman 1962).



Friedman, Milton. 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전문가란 누구인가?

- 둘째, 자율성(autonomy)은 업무 수행의 방식과 기준을 스스로 정립하고 내용, 속도, 범위를 규정할 재량권도 가질 때 성립한다.
- 이는 특히 사회학에서 강조하는 전문가의 특징이다.
- 높은 자율성은 외부 통제의 가능성이 그만큼 작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 전문가 한사람 한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누릴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은 나름의 협회에서 교육훈련의 내용, 인원수 관리, 면허발급 절차, 재교육 등에 관해 (외부 통제를 대체하는) 자체 규제(self-regulation)를 지향한다.
- 자율성은 특히 중요한 전문직의 특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전문가란 누구인가?

어떤 특성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직업으로서 전문직을 규정할 수 있다.

- 이런 특성(traits)을 살펴본 유명한 연구 중 하나는 R. M. Pavalko의 일반직-전문직 연속성 모형(occupation-profession continuum model)이다(Pavalko 1971).
- 이 접근방법에 따르면 전문직이 (다른 직업집단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성이 있으므로 이것들의 평균이나 총합으로 전문직 성격 점수를 측정할 수 있다.
- (보통 전문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많은 일반직도 조금씩은 전문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된다.
- 한계점은 전문직업성을 측정할 때 어떤 요소가 필수적인가 합의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Pavalko, R. M. 1971. Sociology of Occupations and Professions. Itasca, IL: Peacock.



전문가란 누구인가?

- 이를 응용하여 박종연(1993)은 다음과 같이 (의사의) 전문직업 ‘성’을 측정하였다.

〈표 2〉 전문직의 요건 및 의사의 직업특성에 대한 인식의 비교

직업 특성	전문직의 요건 ²⁾ (A)	의사의 속성 ²⁾ (B)	(B/A)*100 ³⁾
특수한 지식을 갖고 있다	4.76	4.59	96.4
일이 재미있고 보람있다	4.43	3.35	75.6
사회에 봉사하는 바가 많다	4.30	3.88	90.2
직업윤리가 확립되어 있다	4.36	3.54	81.2
업무의 자율성이 크다	4.23	3.73	88.2
권위있는 직업으로 인정받는다	3.95	4.18	105.8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3.42	3.54	103.5
수입이 많다	4.06	4.63	114.0
신뢰감이 들고 존경스럽다	4.21	3.45	81.9
계	4.19	3.88	92.6

주 : 1) "전문직의 속성으로서 주어진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 [매우 중요하다(5), 약간 중요하다(4), 중간(3), 별로 중요치 않다(2), 전혀 중요치 않다(1)] 로 측정
한 값임.

2) “의사라는 직업이 주어진 항목들의 속성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 [매우 그렇다(5), 약간 그렇다(4), 중간(3), 별로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측정함.

3) 의사가 전문적으로서의 속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의사의 직업지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부분.

박종연, 1993, “한국 의사의 전문직업성 추이: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7(4): 219-244.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하나의 직업으로서 전문직을 넘어 사회체계에서 전문직은 무엇을 의미할까?

- Pavalko의 모형같은 접근은 결국 전문가 또는 전문직을 개별적으로(individually) 식별하고 점수를 부여하려는 시도이다.
- 그런 접근이 아니라 사회으로 전문직이란 무엇인가?
- 어떤 사회든지 그 안에서 지식(knowledge)이 어떻게 생산되고 학습되며 적용되는지 제도적 방식을 갖게 된다.
- 수많은 제도적 방식 중 하나가 전문직이다. 전문직은 특정 종류의 지식의 획득, 학습, 적용을 독점적이고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직업군이다.
- 대체 왜 이런 방식이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이 전문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Abbott 1988: 1).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이 질문에 대해 고전사회학자들에 의해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다.

- 특히 Emile Durkheim과 Max Weber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 (1) Durkheim 이후 구조기능주의(structural-functionalism) 관점에 따른 설명과
(2) Weber 이후 자율적 영역과 독점권에 따른 설명을 차례로 살펴보자.
- 고전사회학자들의 설명에 관해 서스킨드와 서스킨드(2016: 45-56)를 참고할 수도 있다.

Abbott, Andrew. 1988. The System of Professions: An Essay on the Division of Expert Labor.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서스킨드, 리처드. 대니얼 서스킨드.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혁신이 가져올 새로운 전문직 지형도』. 와이즈베리.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Emile Durkheim은 직업집단이 도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하였다.

- Durkheim은 구조기능주의적 설명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 그는 “직업집단(professional grouping)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억누르고, 노동자의 연대감을 활성화하며, 강자의 법칙이 산업과 상업관계를 전횡하지 못하도록 막는 도덕적 힘”을 발견하였다(Durkheim 1984: xxxix).
- 사실 Durkheim이 사용한 당시 프랑스어에서 profession은 좁은 의미에서의 전문직은 아니고 일반적인 직업(occupation)을 뜻한다.
- 그는 독특한 사회주의를 주장했는데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직업집단이 주도하는 **길드(guild)** 중심의 사회주의였다. 그가 강조했던 길드적 직업집단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낮은 수준의 전문직이라고 보아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Durkheim, Emile. 1984.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NY: Free Press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구조기능주의에 따르면 전문직은 그 역할이 사회통합에 순기능적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 Talcott Parsons (1964: 382)는 전문직이 **사회통제의 매커니즘(mechanism of social control)**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전문직으로서 교사는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사람들이 이로부터 이탈하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전문직으로서 의사는 건강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사람들이 이로부터 이탈하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전문직으로서 법조인은 법질서 기능을 담당하고 사람들이 이로부터 이탈하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Parsons, Talcott. 1964. *Essays in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NY: Free Press.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이 관점에서는 또한 전문직이 사회의 도덕성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 전문직은 고도의 직업윤리에 의해 규제되어 왔고 또 그래야 한다.
- 전문직은 자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익을 얻을 기회보다 사회 전체의 부(wealth)의 증진과 고객의 행복에 더 큰 관심은 기울인다. 그 자신을 위해서는 다만 (전문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는) 긍지를 남겨두게 된다.
- 그러므로 전문직은 높은 위세(prestige)와 지위(status)를 누릴 자격이 있는 셈이다.
-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 전문직을 이해하기 위해 조병희(1990)의 논문 일부를 읽어보자(유인물 참고).

조병희. 1990. “의료사회학과 의료 체제 연구: 라슨과 스타의 의료 체제와 의료 전문직의 형성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20: 207-231.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 Talcott Parsons의 제자인 Robert K. Merton은 과학자사회의 독특한 규범 덕택에 과학지식이 여타의 지식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Communism**: 과학의 성과는 인류 모두의 것이다.
- **Universalism**: 과학지식의 타당성은 과학자의 정치사회적 지위나 개인적 특성과 무관하다.
- **Disinterestedness**: 과학지식의 추구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선 안된다.
- **Organized Skepticism**: 과학적 주장은 받아들이지기 전까지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로 검증받는다.
- 이 독특한 직업윤리 또는 **제도적 규율(institutional imperatives)**을 줄여서 **CUDOs**라고 부른다.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다른 한편에서 구조기능주의는 또한 일반인들의 무지가 결국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지적한다.

- 고도의 산업화 그리고 지식사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시에 함께 의사이자 교사이자 과학자가 될 수는 없다. 심지어 가능하더라도 불필요하다.
- 그러므로 우리는 적절히 분업(division of labor)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춘 이들에게) 전문직으로서의 권력을 위임하고 이들을 신뢰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편이 보다 더 기능적이다(Moore and Tumin 1949).

Moore, Wilbert. E. and M. M. Tumin. 1949. "Some Social Functions of Ignor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4(6): 787-795.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 구조기능주의는 일반인이 전체 분업구조 속에서 전문직 종사자, 즉 **전문가(experts)**를 신뢰해야 함을 강조한다.
- 신뢰가 있어야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이 기능할 수 있고, 신뢰하지 않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다(Giddens 1990).
- Francis Fukuyama는 꼭 짚어 우리나라를 **저신뢰사회(low-trust society)**라고 지적하기도 했다(Fukuyama 1995).
-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수많은 사회문제의 원천이 된다.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UK: Polity Press.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NY: Free Press.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Max Weber는 직업이 분배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미 전문직 개념의 단서를 도출하고 있다.

- 직업(Beruf)의 분배를 설명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가로 나눌 수 있다.
- Weber는 장인, 내과 의사, 법조인, 예술가가 전자의 예로, 공장 노동자와 정부 관료가 후자의 예라고 설명한다(Weber 1978: 140-141).
- 전문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자율성(autonomy),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스로 생각한다(autoccephalous) 측면이다.
- 유흥준 외(2016: 73-74)의 교과서에서는 이에 관련하여 아쉽게도 오역으로 잘못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Weber, Max. 197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이후 Weber의 영향을 받은 사회학자들은 전문직이 가진 자율적 영역에 주목하게 되었다.

- 현재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 영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현재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구조기능주의에 따르면 이것은 **기능적 필요성(functional imperatives)**에 따른 것이다. 전문직의 자율성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 그러나 Weber (그리고 부분적으로 Karl Marx)의 영향을 받은 사회학자들은 전문직 종사자의 (더 높은) 지위를 향한 몸부림(status strivings)과 경쟁집단 간의 권력 투쟁(power struggles)의 결과로 현재 자율성의 공간이 형성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 이 관점에서 Weber의 전통을 따르는 이들은 (구조기능주의적 관점과는 달리) 전문가집단을 기능적으로 특권화하지 않는다.
- 전문가집단은 단지 독점적 지위와 **봉쇄(closure)**를 추구하는 **이익집단(interest group)**에 지나지 않다.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 가장 대표적인 전문직 중 하나인 내과 의사(physicians)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근래에 들어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조병희(1990: 214-215)에 따르면,

“이들은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 체제의 성립으로 파악하면서 전통적으로 봉건 영주 계급에 의존하였던 의사 집단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장경제 구조내에서 생존의 토대를 마련해야만 했던 상황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집단 구성원에 대한 대내적인 단결과 이해의 일치를 위한 전략(예를 들면 교육 수준의 향상을 통한 성원 자격 기준의 강화)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시장 능력(market capacity)’을 향상시켜 시장 독점을 확립하여 나갔다”

“더 나아가 의사들은 시장 체계가 갖는 본질적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의료직의 직업 집단적 통제력을 제고하여 의료 시장에 대한 독점을 진행시켰으며 이러한 독점은 사적 이익의 추구가 아닌 사회적 봉사의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귀족적 직업 윤리를 결부시켜 의료 독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시켰다.”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 전문직은 나름의 자원을 동원하여 투쟁하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획득한다. 조병희(1990: 218-219)에 따르면,

“부르조아지의 경우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확립할 수 있었지만 부르조아지만큼 힘이 강한 계급도 아니었던 전문직의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없었다. 이들에게는 이데올로기작 설득이 주요한 무기였다. 이데올로기의 주요 내용은 직업적 소명감(vocational calling)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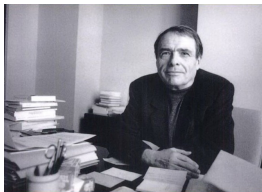
- 내과의사들은 (일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 덕택이 아니라) 자신의 자율적 영역을 얻어내기 위해 싸웠으며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직업 위세를 확보한 것이다.

Freidson, Eliot. 2001. Professionalism: The Third Logic. Cambridge, UK: Polity Press.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 Pierre Bourdieu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전략으로써의 구별짓기(distinction)는 실익이 오고가는 영역 뿐 아니라,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이루어진다.
- 예컨대 전문직은 노동자(worker)라는 꼬리표(label)을 거부한다(Freidson 2001: 13).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기 동료들의 '직업적 소명'의 위배 행위에 대해서도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능력을 갖춘 이들은 자기 자신들 뿐임을 강조한다. 직업윤리의 위반은 자율 규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Freidson, Eliot. 2001. Professionalism: The Third Logic. Cambridge, UK: Polity Press.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오늘날의 의사 역시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한다.

- 오늘날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의사들이 격렬하게 비난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이다.
- (의사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질병에 대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의료행위의 목록을 미리 준비한 다음,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가격을 책정한다.
- 만일 의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진료비 등은 거절되므로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셈이다.
- 2000년 의약분업(“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에 의사집단이 반대한 이유 중 하나는 약사가 (동일한 성분을 가진) 카피약을 처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 이에 더하여 의사의 처방전 공개는 의사의 직무수행에서 투명성과 외부로부터의 감시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전문화의 과정

전문화의 과정

Weber의 관점에서 전문직을 설명한다는 것은 전문직화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다.

- 다시 말해, 전문직화 과정(process of professionalization)에 주목함으로써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역사화한다(Wilensky 1964).
- Harold Wilensky는 하나의 직종이 전문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의 공통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1) 전업(full-time) 직업화
 - (2) 직업훈련학교(training school)의 설립
 - (3) 전문직단체(professional association)의 설립
 - (4) 정치적 활동을 통한 우호적 규제 확보
 - (5) 직업적 윤리헌장(code of ethics)의 확립

Wilensky, Harold L. 1964.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2): 1.



전문화의 과정

첫째, 먼저 전업직업화하여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 전업직업은 Weber가 설명한 관료제의 이상형(ideal type)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 이미 배웠듯 하나의 직업(occupation)은 수많은 일거리(tasks and duties)의 집합이다. 그런데 하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집합이 형성되었을까?
- 이 또한 전략적 선택과 투쟁의 결과물이다. 의미있고 유망하며 보상이 크리라고 여겨지는 일거리는 최대한 가져온다. 더 힘있는 직업집단이 차지하고 남은 일들은 종종 (그보다 약한) 직업집단에게 위임된다.



전문화의 과정

- 물론 시간에 따라 새로운 직업의 기회가 생겨난다.
- (과거 19세기 유럽에서 중산층 도시민이 형성되면서 의사와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듯)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나 문화나 가치의 변동은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일거리 집합에 가치를 제공하고, 이들을 묶은 새로운 직업(e.g., 심리치료사)을 창출해낸다.
- 새롭게 나타난 직업집단은 기성의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이 되기 위해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 기성 전문직이 자라나려는 이들을 견제함은 물론이다(유인물 참고).



전문화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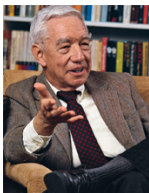
둘째, 직업훈련학교 그리고/또는 대학의 학과를 설립해야 한다

- 제각각 아무곳에서나 기술과 지식을 배워 모인다면 아직 전문직으로서 제도화가 덜 이루어진 셈이다.
- 특정 전문직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직접 설립하거나 기성 교육기관 안에 자리잡아야 하고, 그 안에서 학위 수여와 사제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윤리 규범 공유, 가치관의 사회화 등에도 기여한다.
- 학력을 인정하는 **졸업장(credential)**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를 넘어 전문직 지위를 승인받는 중요한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이 된다.



전문화의 과정

- 흥미로운 사례는 경영대학(Business School)이다. **성실한 전문직(bona fide profession)**으로서 경영자의 대두는 전문경영인 수요의 확대와 연관되어 있다.
- Alfred Chandler는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the Civil War) 이전에는 대기업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한다(Chandler 1977).
- 20세기까지도 미국의 공장 경영자들은 종종 노조에 대해 터무니없는 폭력을 휘두르고 야만적인 수단을 활용했다(Lipold 2014). 사회적인 영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강도 남작(robber baron)**이라고 비난받았다.



Chandler, Alfred D. 1977. *The Visible Hand: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Lipold, Paul F. 2014. ““Striking Deaths” at their Roots: Assaying the Social Determinants of Extreme Labor-Management Violence in US Labor History—1877-1947.” *Social Science History* 38(3-4): 541-575. ▶

전문화의 과정

- 20세기의 역사는 고전적 시장경제가 거대한 기업경제로 재편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Chandler는 이를 **경영혁명(managerial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 대기업이 등장하고 기술과 경영 환경이 고도로 복잡해지면서 합리적인 전문경영인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다.
-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가 제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고,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이 분리 원칙이 불완전하다.
- (1970년대를 포함하여) 몇몇 경제위기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전문화의 과정

- 1881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Wharton School을 설립한 이래 경영대학(Business School)은 초창기 역사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극대화(profit-maximization)**는 대학의 가치인 **이해중립성(disinterestedness)**과 대척에 서있기 때문이었다.
- Rakesh Khurana의 연구(2007)는 경영대학(원)이 어떻게 사회의 더 넓은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대학 관계자들을 설득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 오늘날 이윤극대화라는 **제도적 논리(institutional logic)**가 **당연시(taken-for-granted)**되어 더이상 경영대학(원)이 왜 대학에 있는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Khurana, Rakesh. 2007. From Higher Aims to Hired Hands: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American Business Schools and the Unfulfilled Promise of Management as a Profess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전문화의 과정

- 한편 전문직으로서 사회학자(sociologist as a profession)는 어떻게?
- 미국 시카고 대학(1892년)에서 최초의 사회학과(Department of Sociology)가 설립되었다.
- 하버드 대학 사회학과는 1931년에야 생겨났다가 1946년에는 사회관계학과(Department of Social Relations)로 통합되는 수모를 겪었고 1972년에 겨우 다시 독립했다.
- (당연하지만) Max Weber, Emile Durkheim, Talcott Parsons, Herbert Spencer 등 최초의 전임교수들은 모두 사회학 박사가 아니었다. 제1세대 학자들이 (이들의 제자로서) 사회학 박사가 되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다.
- 사회학이 돈벌이에 즉각 도움되지 않다보니 오늘날 전문직으로서 사회학자는 학과 통폐합과 같은 제도화의 위기에 다시 처하고 있다.

Calhoun, Craig (ed). 2007. Sociology in America: A Histor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전문화의 과정

셋째, 전문가협회를 설립하여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회원들을 통제해야 한다.

- **전문가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는 집단적인 이미지 관리, 매스 커뮤니케이션 응대, 면허발급, 자기 규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Durhkeim은 민주적 직업결사체로서 전문가협회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도덕적 원천으로서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사이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상적으로 전문가협회는 완벽하게 한 전문직의 경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자격(membership) 유지가 전문직 유지에 필수적이다. 이 통제력은 전문가협회가 원숙한 자체 규율(self-discipline)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 물론 전문가협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내부경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유인물 참고).



전문직에 관한 고전사회학적 설명

- 가령 ‘국외여행인솔자’와 ‘관광통역안내사’의 구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 직무정보시스템에서 각각 ‘내국인의 외국여행 안내’와 ‘외국인의 국내여행 또는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로 나타나 두 직업의 직무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 이는 직무의 차별성보다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를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구별짓기의 일환이다.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관광통역안내사 명칭에 “-사”를 붙이고 자격증을 연1회 자격시험을 치르게 한다. 안내사에게는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 국외여행인솔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다른 인솔자의 실무를 참관하는 것은 동업자간에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금기시된다(나윤중 2018).

나윤중. 2018. “직업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국외여행 인솔자 실무 관련 정보의 현실 부합도에 대한 연구: 일본여행 인솔자로서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4(1): 105-123.



넷째, 정치적 활동을 통해 독점권을 유지하는 법규제를 확보해야 한다.

- 이 단계에까지 발전하였다면 해당 전문직은 이미 원숙한 ‘하나의’ 독점적(monopolistic) 전문가협회를 갖춘 상태이며 국가가 제정한 법에 따라 그 존재와 활동 범위에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 종종 관할영역(jurisdiction)을 놓고 충돌이 벌어지면 기존의 법을 폐지하기 위해 투쟁하기도 한다. 가령 변리사는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를 막기 위해 다투고 있다(유인물 참고).
- 오로지 소수의 공인된(certified) 전문직 종사자만이 해당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으며 외부자(outsiders)로부터 봉쇄(closure)된 경계를 형성한다(Weber 1978: 342).



전문화의 과정

- 정치적·기술적 환경이 변화하여 독점권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적으로 대응하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 된다.
- 가령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였고 이는 관련 직업집단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원전산업에 이해관계를 지닌 대표적인 전문직협회는 (사)한국원자력학회이다.
- 이들은 원자력발전에 우호적이라는 결과를 담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발표하고,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펴는 등 여론을 동원하였다(유인물 참고).
- 자원동원의 방식에 관해서는 제3주차 강의안을 참고로 하자.



전문화의 과정

- 흥미롭게도 탈원전에 찬성하는 전문가 집단(e.g., 원자력안전과미래) 역시 존재한다.
- 이들은 (전문직협회는 아니지만)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사회운동에 참여하여 대항지식을 만들어 낸다.
- **전문가 항의자(expert claims-makers)**는 오늘날 사회운동과 정치과정에서 핵심적인 한 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 (Weber가 예측했던 것처럼) 합리화된 관료제가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것 같으면서도 시민사회에서도 (합리화된) 전문가가 이에 대항함을 시사한다.



전문화의 과정

- 수많은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s)는 전문직화 그리고 관료주의화를 이미 겪고 있으며, 종종 이런 탓에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고 비난받는다.
- 그러나 모두가 바쁜 현대사회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담당하는 **전문화된 활동가(professional activists)**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experts)**에게 복잡한 지식을 의존한다는 것은 비영리단체만 특별히 타락했기 때문은 아니다.



전문화의 과정

- 또다른 사례는 한약업사라는 직종이다. 우리나라는 1971년 이전까지 한약 제조업을 규제하지 않다가 한약업사라는 자격증을 부여하면서 이를 전문직으로 승인하였다.
- 그러다가 약사의 한약 취급 문제가 제기되면서 1993년 한약사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제 약사의 경우에는 한약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한약을 팔 수 없게 되었다.
- 한약사는 약사와 한의사라는 두 거대한 전문직 사이에 끼어있는 준전문직으로서, 대학 전공(e.g., 우석대학교 한약학과 등)을 설립하고 전문가협회를 구성하는 등 나름 투쟁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위세를 크게 상실하였다(유인물 참고).



전문화의 과정

다섯째, 직업 윤리현장을 제정해야 한다.

- 직업 윤리현장은 (실제로 준수되는가를 논외로) 특정 전문가협회의 내부 구성원으로 하여금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행동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한다.
- 그러나 한편으로 외적인 기능 또한 수행한다. 이것은 (특정 서비스 제공이 전적으로 자신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이 정당하다고) 대중과 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이데올로기(ideology)적 도구이기도 하다.
- 윤리현장은 전문직으로서의 일처리가 (1)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중립적(neutral)이고, (2) 이해중립성(disinterestedness) 심지어 이타성(altruism)을 강조한다.
- 만일 이해관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 발생한다면 이를 반드시 미리 공표(disclosure)한다.
- 잘 알려진 윤리현장 중 하나는 전문직으로서 의사가 서약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Hippocratic Oath)이다(유인물 참고).



전문화의 과정

- 군(Armed Forces)의 전문직주의는 매우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Weber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국가를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폭력)을 독점하는 정치결사체로 인식하였다. 이 맥락에서 군인은 곧 폭력 행사의 전문직이다.
- 미국의 맥락에서 Samuel Huntington는 군이 전문직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군의 전문성을 민주정치 엘리트가 인정하고 보장하는 대신, 군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관심을 끊고 오로지 전문적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전문화의 과정

- 우리나라에서 군의 전문직주의 발달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 박정희 정권에서 대북 안보라는 목적 이외에도 쿠데타 이후 잠재적인 군내 경쟁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정파적 목적에 따라 군의 전문직화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 전문직으로서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인 사관학교는 국가에 의해 운영 통제되지만 전문직 특유의 윤리현장을 갖고 있다. 예컨대 육군사관학교는 오랫동안 삼금(三禁)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유인물 참고).
- 반면 오늘날 한국군은 절대 전문직협회를 운영·유지할 수 없다(Why?).



지위투쟁의 방식들

지위투쟁의 방식들

전문직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다양한 세련된 방식을 동원하며 교육은 가장 흔한 방식이다.

- 표준직업분류상에서 전문직이 요구하는 높은 교육수준은 물론 고난이도 직무 탓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별짓기의 한 방식이기도 하다.
- 많은 현장연구는 소위 전문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많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업무임을 드러낸다(리베라 2020).
- 비교국가연구는 유사한 직종이라도 국가의 제도적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학력 수준에 커다란 격차가 나타남을 보여준다(Muller et al. 1989).
- 만일 요구하는 교육수준이 일 그 자체의 내적 속성에만 순수하게 의존한다면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상하다.

리베라, 로런 A. 2020. 『그들만의 채용 리그: 고소득 엘리트는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지식의날개.

Muller, Walter, Paul Luttinger, Wolfgang König and Wolfgang Karle. 1989. "Class and Education in Industrial 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19(3): 3-39.

지위투쟁의 방식들

전문직은 스스로의 지식체계를 신비화한다.

-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신비한 **전문용어(jargon)**의 사용은 대중들의 접근을 차단한다.
- 때때로 오인을 불러일으켜 심각한 의료사고를 일으키지만(Babbie 2021: 6), 의사는 가능한 처방전을 휘갈겨쓰는 것을 선호해 왔다.
- 사회학자들도 영 알아들을 수 없는 복잡한 개념들을 발전시켜왔다. 때로는 거의 비슷한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학파마다 다른 전문용어를 만들어 유통시켰다 (Why?).

Babbie, Earl. 2021. 『사회조사방법론(15판)』. Cengage.



지위투쟁의 방식들

조직의 위계 역시 지위투쟁의 방식으로 활용된다.

- 직업의 전문화가 진행되고 또 시간 경과에 따라 일거리의 진부화가 발생한다.
- Wilensky (1964)에 따르면 전문직으로서 의사는 한때 자신들이 직접 수행했던 많은 일거리를 자기보다 지위상 하위집단(e.g., X-ray 기술자와 간호사 등)에게 위임하면서 스스로의 지위를 공고화하였다.
- 한때 간호사가 맡던 몇몇 일거리조차 이제 진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안경사, 간호조무사에게 위임된다.
- 전문화의 과정은 “모두가 다 같이 전문가가 되자”와 같은 포용을 지향하기보다는, 자격자와 비자격자 사이에 구별짓기를 통해 차이를 강화하므로 조직내 직위의 수직적 분화(vertical differentiation)가 촉진된다.



지위투쟁의 방식들

- 그런데 현재 위임된 일거리의 **관할권(jurisdiction)**과 권한 분장은 언젠가는 다시 갈등의 지점이 된다.
- 위임받은 직업집단 역시 이른바 **준전문직(semi-professions)**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투쟁하기 때문이다.
- 기성의 전문직(과 그들을 대변하는 전문가협회)은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문지기(gatekeeper)**로서 그 집단에의 입직구(entry)를 좁히지만, 준전문직은 이에 도전한다.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갈등은 이러한 맥락을 잘 드러내고 있다(유인물 참고).



지위투쟁의 방식들

- 정동일(2009)의 연구는 자격증 생태계에 있어서도 유사한 매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동일 자격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자격보유자 수가 증가할수록 그보다 낮은 등급에서 자격의 도입이 촉진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조직 위계의 수직적 분화는 기능적 필요성(functional imperatives)에 부응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구별짓기와 같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동일. 2009. “자격과 자격생태계, 그리고 직업집단의 이해: 국가기술자격의 도입, 1974 ~ 2004.” 한국사회학 43(2): 166-202.

